

# 마고와 파올로



와! 네 그림 진짜 멋지다!

고마워! 애는 황금사자 타마린이야. 대서양 열대우림에 사는 원숭이의 일종이지. 주황색 털이 있고, 또 ...



미안해. 나는 항상 말을 너무 많이 한다니까. 나는 친구를 사귀는 데 서툴러.



그건 아닌 것 같은데? 방금 한 명 사귀었잖아. 그 친구 이름은 마고야. 바로 나!



여기 처음 왔지? 너 이름이 뭐야?

난 줄리아야.



원숭이 이야기 더 해 줄래? 나는 동물을 좋아하거든. 나중에 난 수의사가 될 거야.

정말? 나도!



그럼 내 앵무새 키위를 만나 볼래? 그리고 내 동생 파올로도. 동생도 너처럼 그림을 잘 그려.

재미있겠다!